



공동 은메달 "우리는 친구" 지난 31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박태환(오른쪽)과 쑤양이 경기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0' 문제없다?

잇단 오심·판정 번복에 초반 목표 차질

선수단 "많은 경기 남아 충분히 가능해"

런던올림픽에서 10개 이상의 금메달로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에 오르겠다는 '10·10' 전략을 세운 한국 선수단이 초반 금메달 획득이 주춤한 상황에서도 목표 달성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 대회 사흘째인 지난 30일(현지시각)까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대한체육회와 한국선수단은 이날까지 최대 6개의 금메달을 수확해 초반 메달 페이스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궁 여자 단체전과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진종오가 예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뿐 나머지 종목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4회 연속 우승을 기대했던 양궁 남자 대표팀이 미국에 달미를 잡혀 동메달에 머물렀고, '망공 검객' 남현희는 펜싱 여자 플뢰레에서 두 차례나 빼어난 역전패를 당하며 4위를 기록했다.

우승이 유력했던 세계랭킹 1위 양기춘은 유도 남자 73kg급에서 경기 중 양팔을 모두 다치는 최악의 상황으로 메달권에서 멀어졌다.

이 와중에 '판정 번복' 파동이 결정적인 순간 두 번이나 발생하면서 금메달 사냥에 큰 차질을 빚었다.

수영 남자 400m 자유형에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박태환은 '실력 번복'을 겪은 탓에 결승에서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또 유도 남자 66kg급에 출전한 조준호는 심판의 '칭기 백기' 게임에 희생양

이 되면서 결승 진출 기회를 놓쳤고 패자부활전에서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급기야 30일 펜싱 여자 에페에서는 신아람이 고무줄 같은 시간 계측과 1초를 엿가락처럼 늘린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 탓에 결승 티켓을 놓친 뒤 3-4위전에서 패하고 말았다.

예상치보다 금메달 4개가 적은 상황이나 한국선수단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많은 경기 남아 만큼 양궁, 태권도, 사격, 체조, 레슬링 등에서 금메달을 보태면 10개는 너끈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사격은 '금메달 2개+양궁'을 목표로 잡고 추가 메달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자 25m 권총과 남자 50m 권총에서 메달을 보탤 공산이 크다.

태권도는 차동민, 이대훈, 황경선을 앞세워 2~3개의 금메달을 따내 중국과의 체면을 살리겠다는 자세로 나선다.

'효자종목' 양궁은 남녀 개인전에서 동반 우승을 노린다.

이밖에도 남자 체조의 양학선, 레슬링의 정지현, 복싱의 신종훈, 배드민턴의 이용대-정재성이 쟁쟁한 맞수를 따돌리고 예상대로 금메달을 따낸다면 한국의 금메달은 최대 16개까지 가능하다.

64년 만에 '악역의 땅' 런던을 찾은 한국이 초반 부진을 딛고 중반부터 금메달 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박태환 자유형 200m 은메달 쾌거

한국 남자 첫 올림픽 2회 연속 2개 메달



박태환(23·SK텔레콤)이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박태환은 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93의 기록으로 쑤양(중국)과 동시에 터치패드를 찍어 1분43초14를 기록한 야니 아벨(프랑스)에 이어 공동 은메달을 차지했다.

4년 전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마이클 펠프스(미국)에 이어 은메달을 딴 박

태환은 이로써 대회 2회 연속 은메달을 수확했다. 또 자유형 400m 은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남자선수 중 하계 올림픽에서 2개 대회 연속 2개의 메달을 수확한 선수는 박태환이 처음이다.

전날 남자 계영 400m에서 프랑스의 마지막 영자로 나서 우승을 일군 야니은 이번 대회 첫 2관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딴 쑤양도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챙겼다.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실력 과동'에 휘

말려 결승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메달을 딴 박태환이 다시 힘차게 물살을 갈았다. 금메달은 물론 세계기록까지 노렸던 주종목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놓쳐 상실감이 컸지만 자유형 200m에서 2회 연속 '은빛 레이스'를 펼치며 아시아 수영의 대를 보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뽐냈다.

준결승에서 전체 3위를 해 3번 라인 출발대 위에 선 박태환의 출발 반응 속도는 0.64초로 결승에 나선 8명 중 가장 빨랐다.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야니이 치고 나갔다. 그 뒤를 토마스 프레이저-호스(호주), 록티, 박태환 순으로 따라가 첫 50m 구간을 돌았다. 쑤양은 6위로 처졌다.

박태환은 첫 턴을 하고나서 피치를 올리기가 시작해 100m 구간을 돌 때는 2위로 나섰다. 호스가 뒤떨어져 나가고 대신 쑤양이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후 박태환은 록티에게 따라잡혀 150m 구간에서는 3위로 밀려났다. 마지막 50m 구간에서는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트로 맹주격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야니을 따라잡는데는 실패하고 두 번째로 레이스를 마쳤다.

맞수 쑤양도 무서운 속도로 물살을 갈라 박태환과 나란히 터치패드를 두드렸다.

/연합뉴스

"막판 5m 힘들어 못 가졌더라"

박태환 인터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에서 2회 연속 은메달을 수확한 박태환은 자신의 어깨에 걸머진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다.

다음은 박태환과의 일문일답.

-쑤양과 공동 은메달을 차지했는데

▲막판 5m를 남겨두고 야니에게는 뒤졌지만 쑤양에게는 조금 이기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마지막 5m를 정말 못 가졌더라. 똑같이 해도 (쑤양이) 나보다 신체가 크다.(웃음) 공동으로 시상대에 올라간 것이 수영 인생에서 처음이라 이것도 뜻깊은 것 같다. 같은 동양인이 같이 시상대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것 같다.

-시상대에서 쑤양과 무슨 얘기를 나눴나

▲우리나라 국기만 올라가고 너희 국기는 안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나도 영

어를 못하지만 쑤양도 영어를 못해서 많은 얘기는 못 했다. 쑤양에게 키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2m라고 했다.

-몸 상태는 어땠나

▲금메달이나 그런 걸 걱정한 것이 아니라 200m에서는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400m에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았다. 기대에 부응을 못한 것 같아서 국민들을 기쁘게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게 긴장으로 연결된 것 같다. 떨리더라.

-결과에 만족하는지

▲"자기 기록도 나오지 않았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메달도 목에 걸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해서 행운인 것 같다.

-앞으로 1500m 경기가 남아는데

▲1500m에서도 좋은 기록을 내고 싶고,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연합뉴스

박태환·쑤양 100분의 1초까지 같았다

라이벌 구도 점입가경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을 다투는 런던올림픽의 대표 맞수인 박태환과 쑤양의 라이벌 구도가 점입가경이다.

오심으로 빛이 바랜 자유형 400m 첫 대결을 뒤로하고 같은 조건에서 맞붙은 200m에서 100분의 1초까지 기록이 일치하는 보기도 드문 명승부를 펼쳐 두 나라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박태환과 쑤양은 1분44초93의 같은 기록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수영 경기에서 100분의 1초까지 따져도 우열을 가릴 수 없어 공동 메달을 수상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최고의 스포츠 제전인 올림픽 무대에서 '사연 많은' 대표 라이벌이 동시에 터치패드를 찍어 시상대에 함께 오르는 장면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2010년 광주우아시안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최국 중국의 기대주로 다관왕을 노리던 쑤양은

당시 자유형 200-400m에서 박태환에 밀려 주종목인 1500m 금메달을 목에 거는 데 만족해야 했다. 쑤양은 당시 200m를 2위로 들어온 뒤 "박태환과 엄청난 실력 차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완패를 인정했다.

1년 동안 수양을 쌓은 쑤양은 지난해 4월 중국춘계선수권에서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기록을 갱진 정작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박태환에 밀려 준우승에 그쳤다. 그러나 쑤양은 자유형 15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해 박태환과 함께 종장거리 자유형을 양분하는 라이벌로 우뚝 섰다.

개막 첫날 벌어진 자유형 400m에서의 승부는 두 사람의 진짜 실력보다는 영동한 오심의 영향으로 가려져 아쉬움을 남겼다.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 쑤양과의 재대결을 펼치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두 사람은 8월 3~4일 예선과 결승 경기가 펼쳐지는 1500m에서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이 지난 31일(한국시각)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경기 일정

- ◇1일(한국시각)
 - ▲17시30분 여자 핸드볼 예선 B조 대한민국 vs 노르웨이
 - ▲17시51분 유도 남자 -90kg급 32강 송대남
 - ▲18시30분 펜싱 남자 개인 에페 박경두
 - ▲18시33분 유도 여자 -70kg급 32강 황예슬
 - ▲18시56분 수영 여자 200m 평영 예선 정다래
 - ▲20시00분 사격 여자 25m 권총 예선 김장미, 김경애
 - ▲20시30분 유도 여자 69kg급 문유라
- ◇2일(한국시각)
 - ▲01시00분 남자 축구 예선 B조 대한민국 vs 가봉
 - ▲03시00분 유도 남자 77kg급 사재혁
 - ▲05시15분 남자 하키 예선 B조 대한민국 vs 독일
 - ▲06시00분 여자 배구 예선 B조 대한민국 vs 브라질
 - ▲16시30분 여자 하키 예선 A조 대한민국 vs 일본
 - ▲17시30분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대한민국 vs 스페인
 - ▲17시44분 유도 남자 -100kg급 32강 황희태
 - ▲18시19분 유도 여자 -78kg급 32강 정경미
 - ▲18시30분 펜싱 여자 단체 플뢰레 대한민국 vs 미국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네번째 신행 8월 24일(금) / 민주지산
 ※일정 및 신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후원 | 광주일보사